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꼼꼼히 수리해 주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고객님 말씀 덕분에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고객님이 제품을 잘 관리하셔서 수월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 ①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난다.
- ②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③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 다음 대화에서 '소운'의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은영: 지난번 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
 소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은영: (화난 목소리로)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 ①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
- ② 혼자서만 말을 길게 했다.
- ③ 지나친 비속어를 사용했다.
- ④ 과도한 줄임말을 사용했다.

3.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의자에 얹지 마시오.
- ②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다.
- ③ 짐을 옮기고 이곳에 모여라.
- ④ 머리를 감고서 세수를 했다.

4. 밑줄 친 부분 중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불길이 바로 잡혔다.
- ② 막냇동생의 신발 끈이 풀렸다.
- ③ 철수가 다친 친구를 등에 업었다.
- ④ 그림을 그릴 때에는 붓이 사용된다.

5.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문장은?

- ① (기자가 시민에게) 잠시 인터뷰하실 시간 있으세요?
- ② (점원이 손님에게)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 ③ (엄마가 아들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렴.
- ④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6. 다음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 언해]

㉠ 나·랏·말싸·미申·동國·귀·에달·아文·문字·쫙·와·로
 서르스·뭇·디아·니·홀·썸·이런·전·츠·로어·린·百·빅
 姓·성·이니르·고·저 ㉡ ·홀·배이·셔·도·ㅁ·츄·내
 제 ㉢ ·쁘·들시·러·펴·디·물·홍 ㉣ ·노·미·하·니·라

- 『월인석보(月印釋譜)』 -

- ① ㉠: 방점을 사용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 ② ㉡: ‘ㅇ’이 표기에 사용되었다.
- ③ ㉢: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 ④ ㉣: 끊어 적기로 표기하였다.

7. 다음 개요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문: 온라인 공간에서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하자.

- I. 서론: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노출 실태
- II. 본론: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
 - 1. 개인이 일일이 정보를 삭제하기 힘들다.
 - 2.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
 - 3. ㉠
- III. 결론: 온라인 공간에서 ‘잊힐 권리’의 법적 허용 촉구

- ①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억압한다.
- ② 지나친 정보의 통제에 ‘알 권리’가 침해된다.
-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 ④ 개인 정보의 지속적 노출이 정신적 피해를 준다.

8. 다음 글에서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칭찬의 대화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일컬어 기리기 위한 대화를 뜻한다. ㉠ 남에 칭찬하면 자신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한다. 또한 칭찬은 삶의 ㉡ 활력소로 기능을 한다. ㉢ 강도 높은 거절을 ‘거부’라고 한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 효과적으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 ① ㉠: 잘못된 조사 사용이므로 ‘남을’로 바꾼다.
- ② ㉡: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활력소’로 고친다.
- ③ ㉢: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적절한 단어 사용이 아니므로 ‘권위적’으로 수정한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문장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④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주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0. ㉠~㉣ 중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표현한 시어는?

-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시인은 4·19 혁명을 계기로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발표하였다.

- ① 현실에 만족하는 삶
- ② 불의에 저항하는 삶
- ③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
- ④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삶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던 영달은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러 역으로 가던 중 일하던 곳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 함께 기차역에 가게 된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가]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적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비현실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작품 안 서술자를 통해 서로 불신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3. ㉠~㉣ 중 ‘정 씨’의 말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4. 윗글의 [가]에 나타난 ‘백화’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역을 떠나게 되어 억울해 하고 있다.
- ② 두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③ 기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짢아하고 있다.
- ④ 이름을 속인 것을 들키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버디 몇치나 흐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 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솨 밧괴 또 더햐야 머엇흐리 (제1수)

㉠ 구름 빗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¹⁾ 흐다
 ㉡ 브람 소리 몯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²⁾
 조코도 그출 뉘³⁾ 업기는 ㉢ 물뿐인가 흐노라 (제2수)

더우면 곳 꿩고 치우면 ㉣ 뉘 디거늘
 솔아 너는 언디 눈 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⁴⁾의 불희⁵⁾ 고든 줄을 글로 햐야 아노라 (제4수)

- 1) 즈로: 자주.
- 2) 하노매라: 많구나.
- 3) 뉘: 세상이나 때.
- 4)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
- 5) 불희: 뿌리가.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렴구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다.
- ②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로 맞추고 있다.
- ③ '기-승-전-결'의 4단 구조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3·3·2조를 기본으로 한 3음보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16. ㉠~㉣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물로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자연물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을 예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 '나'뿐이다.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들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뽕뽕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17.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행과 연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한다.
- ③ 등장인물, 대사, 행동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 ④ 현실을 반영하여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 낸다.

18.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19.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주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나와 맺어져 있어 떠날 수 없다.
- ② 천하엔 '나'보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많다.
- ③ 나는 '나'와 타인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한다.
- ④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 스티렌은 나노(10억분의 1)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 김정수,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

20.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세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미세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미세 플라스틱 증가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 ②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유해 물질을 끌어당긴다.
- ③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양 생물을 인간이 섭취해도 유해 물질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
- ④ 먹이 사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농축된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22. 밑줄 친 부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상자가 무거워 들거나 끌기 힘들다.
- ② 이 제품의 디자인은 관심을 끌기 힘들다.
- ③ 눈이 많이 내려서 자동차를 끌기 힘들다.
- ④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시간을 끌기 힘들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질문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라는 질문처럼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마다 각자 ㉠ 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나게 살기’입니다. 재미있는 삶, 지루하지 않은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 심오하고 심각해서 ㉢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재미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장난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살기’입니다.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하더라도 ㉣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형태는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 스물네 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만 가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 최인철, 「행복은 몸에 있다」 -

2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4.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 ② ㉡: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으며 오묘하고
- ③ ㉢: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기
- ④ ㉣: 계획이나 희망 따위의 장래성과 규모가 큰

2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기로 쉽지 않다.
- ② 장난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신나게 사는 것이다.
- ③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 ④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끈다.